


고구려 도성의 변화 발전 과정으로부터
본 고구려 평지도성의 특점
(Special Features of the Valley Walled
Fortress of Koguryo)

- 발표 방 학 봉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
Presenter Pang Hak Bong (Yanbian University)
- 토론 이 인 철 (고구려연구재단)
Discussant Lee, In Chol (Koguryo Research Foundation)



고구려도성의 변화 발전 과정으로부터 본 고구려 평지도성의 특징

방 학 봉 (Pang Hak Bong, 延 劔大學渤海史研究所)

머 리 말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립되어 기원후 668년까지 705년간 존속하였다. 고구려는 당시 동북아(東北亞)의 최대강국으로 역사에서 찬란한 자기의 민족문화를 창조하였다.

고구려는 그가 존속한 전기간 수도를 네곳에 정하고 세 번 천도(遷都)하였다. 첫 번째는 유리명왕 22년(琉璃明王-기원 3년) 흘승골성(紇升骨城-오늘의 환인현 훈강대안에 있는 오녀산성)에서 국내성(國內城-오늘의 길림성 집안현 현성)으로 옮겼고 두 번째는 427년 국내성에서 안학궁(安鶴宮-오늘의 조선 평양시 대성산기슭)으로 옮겼으며 세 번째는 586년 안학궁에서 장안성(長安城-오늘의 존선평양시)으로 옮겼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고구려 도성(都城)으로 알려진것은 오녀산성(五女山城), 국내성, 평양의 안학궁과 장안성이다. 이는 고구려 도성을 연구하는데 주되는 유적이다. 이외 고구려 벽화무덤인 순천의 룡동성무덤, 강서의 약수리무덤, 룡강의 존무덤 등에 보이는 성곽도(城郭圖)들도 고구려 도성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된다. 고구려의 도성을 그 지형에 따라 산성(山城)과 평지성(平地城)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고구려도성의 개황

1. 오녀산성(五女山城)

고구려 도성가운데서 산성(山城)은 오녀산성(五女山城) 하나만 취급하려 한다. 오녀산성은 고구려의 첫수도성이다 《광개토왕비문(廣開土王碑文)》에 《……주몽은 ……강을 건너서 비류골의 흘본서쪽 산우에 성을 쌓고 수도를 정하였다.》라하였고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시조 동명왕기》에는 《……주몽은 그들과 함께 졸본촌에 이르러 그 땅이 비옥하고 산천이 준협함을 보고 도읍을 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미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다만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이에 따라 고(高)를 성씨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비류골(沸流谷)의 흘본(忽本) 서쪽에서 산우에 성을 쌓고 수도를 정하였다는 산성(山城)이 바로 《위서(魏書)》에 나오는 흘승골성(紇升骨城) 즉 오늘의 료녕성 환인현 오녀산성(遼寧省恆仁縣五女山城)이다. 그리고 오녀산성의 유지와 유물, 산성부근에서 수많은 고구려무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오녀산성이 고구려초기의 도성이었음은 틀림없다.

오녀산성은 높고 험준한 산세를 잘 리용하여 쌓았다. 서쪽, 북쪽, 동북쪽의 대부분은 깎아지른듯한 수십미터 높이의 낭떨어지이므로 서쪽은 자연산세 그대로 리용하고 북쪽과 동북쪽은 절벽사이의 일부 구간에만 성벽을 쌓았다. 성벽은 주로 동남쪽과 동쪽의 산중턱에 쌓았는데 동쪽성벽의 길이는 1000미터이고 남쪽성벽의 길이는 110미터이다. 성벽의 남은 높이는 3~6미터이다.

산성의 주요부분은 산꼭대기에 있다. 그의 남북의 길이는 600미터이고 동서의 너비는 130~200미터이다.

성벽은 돌로 쌓았는데 성돌(보통30×20×35센치미터정도)은 화강석을 사각추형으로 잘 다듬어 규모있게 쌓았고 그 사이에는 막돌과 흙을 다져넣었다. 성문(城門)은 남쪽, 동쪽, 서북쪽에 있고 동문(東門)의 너비는 4미터이고 문벽은 서로 어기게 하여 옹성(翁城)이 되게 하였다. 동문의 옹성(翁城)에 대해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문벽이 서로 어기게 되어 옹성같기는 하나 실제상에서는 그것이 옹성이 아니다. 즉 문벽이 서로 어기여 반원형(半圓形)을 이루었지만 이는 옹성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수문병(守門兵)들이 있던

곳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웅성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남문(南門)은 남쪽성벽과 동쪽성벽이 서로 접촉하는 곳에 있는데 그 너비는 약 3미터 남짓하다. 이곳에는 웅성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서문(西門)의 너비는 약 10미터이다. 서문밖에 돌로 쌓은 성벽이 서로 어기게 되어있는데 그 모양은 장방형이다. 이를 장방형웅성문이라고 한다.

성내에는 또 장대(將台)와 못, 물웅덩이, 건축유적지가 있다.

산꼭대기 동남쪽 제일 높은 곳은 천연적으로 평평하게 되어있는데 그 평지의 남쪽 끝에 장대가 있다. 이 대지(台地)우에는 높은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에서 《천지(天池)》라고 불리우는 못이 있다. 못의 둘레는 성벽쌓듯 돌로 딱을 쌓았다. 못의 서남쪽에는 물원천이 풍부한 샘이 있으며 그 물을 못으로 이끌어들였다가 다시 북쪽으로 빠지게 하였는데 북쪽에는 큰 물웅덩이가 있다. 못은 장방형으로 되었다. 못부근에 작은 우물(井)이 있는데 우물안의 벽은 돌로 쌓았다. 지금 남아있는 못의 길이는 약 14미터, 너비는 6미터, 깊이 2미터이다. 이못에는 지금도 물이 차있고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다.

오녀산성에는 건축지도 여러개 있으며 고구려고유의 붉은 기와가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다.

이상의 사실을 간단히 모두어 보면 오녀산성은 험요한 지세와 교통요충지를 선택하여 쌓았기 때문에 방어하기 쉽고 공격하기 바쁘며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기 편리하며 성벽은 돌로 쌓은 석성(石城)이고 성의 전체모양은 장방형으로 되었으며 3개의 성문이 있는데 동문과 서문에는 웅성이 있으나 남문에는 웅성이 없고 성벽에는 치(馬面)가 없지만 성내에는 장대, 못, 우물, 건축유지 등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2. 평지도성(平地都城)

고구려의 평지도성으로 국내성, 안학궁, 장안성 등 3개 도성이 있다. 고구려의 초기도성으로 환인현에 있는 하고성(下古城)을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고성은 고구려의 초기평지도성이라고 확인되지 못한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잠시 고구려의 초기평지도성이라고 취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① 국내성(國內城)

국내성은 평지성으로서 고구려의 두 번째의 수도이다. 이 성은 지금의 집안시구역인 압록강중류 통구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성의 평면형태는 정방형에 가까운 동서방향의 약간 긴 장방형이다. 방향은 155°이다. 동쪽성벽의 길이는 554.7미터, 서쪽성벽의 길이는 664.6미터, 남쪽성벽의 길이는 751.5미터, 북쪽성벽의 길이는 715.2미터이고 둘레의 총길이는 2,686미터이다. 성벽안밖면은 장방형 혹은 방형의 조석으로 축조하고 중심에는 흙과 자갈을 채워넣고 다졌다. 성벽밑부부는 계단모양으로 조금씩 안쪽으로 꺾으면서 쌓았는데 특히 북쪽성벽은 무려 11단이나 꺾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벽의 밑너비는 7~13m이고 현존높이는 2~4m이다. 성문은 남북면에 각각 한곳, 동서면에 각각 두곳씩 마련하였는데 거개가 웅성문형식으로 되었다. 2003년도에 발굴조사한데 의하면 서쪽성벽의 서남문은 어긋문으로 되었고 동북성벽의 굽돌이와 서남성벽의 굽돌이는 원각(圓角)을 이루고 원각좌우에 치가 설치되어있다. 동남성벽의 굽돌이와 서북성벽의 굽돌이는 직각으로 각루가 설치되어있다. 성벽에는 또 16개의 치가 설치되었다. 성벽, 성문, 각루, 치 등은 몹시 파괴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면모를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집안현지》의 기재에 의하면 민국10년(民國十年-1921년)에 3개의 성문을 다시 만들었는데 동쪽문을 집문문(輯文門), 서쪽문을 안무문(安武門), 남쪽문을 금강문(襟江門)이라 불렀다. 해방초기까지 보존되어오다가 국내혁명전쟁시기에 파괴되었다. 성문마다에는 웅성이 있었는데 웅성은 고구려성의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다.¹⁾

② 안학궁(安鶴宮)

안학궁은 대성산산성과 함께 4세기말 5세기초에 건설되었다. 427년 장수왕(長壽王)때 국내성에서 안학궁으로 천도하였다. 이때로부터 안학궁은 고구려의 정치,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되었다.

안학궁은 대성산의 소문봉 바로 남쪽기슭에 자리잡고있으며 동쪽성벽의 길이는 622미터이고 서쪽성벽의 길이는 623미터, 남쪽성벽의 길이는 617미터, 북쪽성벽의 길이는 618미터로서 대략 배변의 길이는 약 620미터좌우라고 볼수 있으며 둘레의 총길이는 2,488

1) 《집안현문물지》 61~64페이지.

미터이다. 성은 약간 룡형으로 된 4각형(方形)이고 남으로 대동강, 서에 합장강, 동에 장수천이 흐른다. 성의 면적은 약 38만평방미터이고 그안에는 총건평 3만1,458평방미터되는 52개(궁전 21, 회랑 31)의 건물을 세웠다.

궁성은 밑부분에 3~7단으로 돌을 쌓고 그우에 흙을 다져 높이 약 12미터정도되는 토성벽(土城壁)을 쌓아올렸다. 동, 서, 북에는 각각 문이 하나씩 있었는데 남쪽만은 남서(南西), 남(南), 남동(南東)의 3개 성문을 내었다. 궁성의 동, 서에는 너비80~120센치미터되는 해자를 팠다. 궁성은 크게 5개 건축군으로 이루어졌다. 즉 남궁(南宮), 중궁(中宮), 북궁(北宮)이 중심축우에 놓인 3대 건축군을 형성하고 그 동, 서쪽에 동궁(東宮), 서궁(西宮) 건축군을 형성하였다. 궁성안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산과 못도 있다. 궁성내에는 크고 긴 회랑들로 남궁, 중궁, 북궁들을 련결하고 둘러쌈으로써 왕궁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안학궁은 둘레 2,488미터로서 국내성(2,626미터)보다는 좀 작으나 국내성은 왕궁(王宮) 이외에도 주요관청들이 들어앉아있었음에 비하여 안학궁성은 순전한 왕궁성으로 건설되고 주요관청들은 그 앞에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궁성으로서 안학궁의 규모는 그 전과는 대비가 안될 정도로 컸던 것이다.

③ 평양성

평양성은 552년부터 586년사이에 35년간의 시간을 거쳐 지어진 도성으로서 고구려도성가운데서 제일 완벽하고 견고하며 웅위로운 성이다.

이 성은 평지와 산지의 자연조건을 합리하게 종합리용하여 수축한 평산성(平山城)이다. 성의 3면은 큰 강인 대동강(大同江), 보통강(普通江)에 둘러싸였다. 성의 모양은 표주박형의 다성련접제형(多城連接制形)이다.²⁾

성벽은 강면과 산지의 룡선을 따라 돌면서 구축하였는데 둘레길이는 23km이고 평면형태는 남쪽이 크고 북쪽이 작은 조롱박모양으로 되었다. 성벽은 국부적구간에만 흙과 돌로 혼축하였을뿐이고 절대대부분은 다듬어진 조석(條石)으로 미끈하게 치석하였다. 웅근 성은 북성, 내성, 중성 및 외성으로 나뉘어졌는데 그중 북성벽은 먼저 큰 돌로 밑부

2) 손영중: 《고구려사》 (1). 319~322페이지

분을 얼마만한 높이로 쌓은후 그우에 자그마한 돌을 쌓아 벽체를 마련하였다. 성의 평면배치를 보면 외성은 성의 남단인 대동강충적분지에 자리잡았고 그우에 세 개 성이 북쪽으로 곧추 뻗은 고산지대를 따라 차례로 병렬되었다. 북성은 산세가 몹시 험악한 목단봉의 최고봉에 건설하였다.

II. 고구려도성의 변화 발전 과정으로부터 본 고구려 평지도성의 특징

고구려의 평지도성(平地都城)으로 국내성(國內城), 안학궁(安鶴宮), 장안성(長安城-평양성) 등 세 개가 있다.

고구려의 평지도성은 그의 발전과정에서 자기의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주변국가들의 평지도성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더욱 명확히 알수 있다. 특히 수당시기(隋唐時期) 평지 도성인 장안성(長安城)과 비교하여 그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평지도성의 축성형태와 규모

고구려의 국내성, 안학궁, 평양성 등 3개 평지도성의 축성형태와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성은 정방형에 가까운 동서로 놓인 장방형이다. 성벽의 둘레길이는 2,686미터이고 동쪽성벽의 길이는 554.70미터이며 서쪽 성벽의 길이는 664.60미터이다.³⁾

안학궁은 룡형에 가까운 4각형이다. 그 면적은 38만평방미터가 넘으며 그안에는 건물터가 있다⁴⁾. 성벽의 매 면의 길이는 622미터좌우이다.

평양성(장안성)은 외성, 중성, 내성, 북성 등 4개 성으로 구성된 평산성(平山城)이며 그 둘레의 길이는 23키로미터이고 성안의 총면적은 1.185만평방미터에 달하는 큰 성이다⁵⁾. 평양성은 성벽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4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다성형제(多城形制)이

3) 《집안현문물지》 제61~62페이지

4)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1973년 제105페이지

5) 《조선전사》(3). 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년판 제179페이지

다. 그 모양은 표주박형(葫蘆形)이다.

위의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고구려의 평지도성은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단성제(單城制)이고 후기에는 련접형제(連接形制)로 발전하였다. 안학궁은 궁전밖에 궁전(宮殿)을 보호하는 성벽 한벌만 쌓고 내(內), 외(外) 두 성벽을 구성하지 않았다. 궁전(宮殿)은 모두 회랑에 의해 련결되었다. 국내성정황도 안학궁정황과 같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성벽이 한벌뿐이다. 고구려의 후기도성인 평양성(장안성)은 외성, 중성, 내성, 북성 등 4개 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성과 성사이에에는 모두 한 개의 성벽으로 련접되었다.

둘째, 고구려의 국내성, 안학궁은 단일성벽의 4각형 도성이었지만 평양성축성시기에 이르러서는 서남이 넓고 동북이 좁은 표주박형으로 축성되었다.

셋째, 국내성 둘레길이는 2686미터이고 안학궁 둘레길이는 2488미터이며 평양성 둘레길이는 23킬로미터인 것으로 보아 국내성과 안학궁시기에는 도성의 둘레길이 2,600미터 좌우의 도성이었지만 평양성수축기에 이르러서는 둘레길이 23킬로미터나 되는 규모가 아주 큰 도성으로 발전하였다.

고구려가 존속한 기간내에 중원지역(中原地域)에서는 량한(兩漢), 3국, 량진남북조(兩晉南北朝), 수(隋), 당(唐) 등 나라들이 교체되었다. 각 나라마다 모두 도성(都城)을 수축하고 나라를 다스렸다. 많은 도성들 가운데서 한(漢)의 장안성(長安城), 조위(曹魏)의 업성(業城-하북성 립장부근), 수당(隋唐)시기의 장안성(長安城) 등을 레로 들어 고구려평지도성과 비교해 보려고 한다.

한(漢)의 장안성은 건국후 7년(기원전 199년)으로부터 혜제(惠帝)5년(기원전 189년)까지 전후 20년사이에 수축되었다. 장안성은 먼저 궁전이 건축되고 나중에 성벽이 수축되었다.

업성(業城)은 조조(曹操)가 중국의 근절반을 통일한 다음 후방의 근거지를 공고히하기 위해 새로운 도성 업성을 건설하였다.

업성의 계획적인 보취는 중국의 그대도시건설계획배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었다. 업성은 한나라 도성의 궁전과 외성(外城)이 명확히 구분된 좋은 면을 직접 계승하고 서한 장안성과 동한 낙양(洛陽)성처럼 궁전과 리방(里坊)이 서로 엇갈려 있거나 궁전이 리방에 둘러싸이는 결합을 극복하고 도시구역을 매우 명확히 하여 통치계급과 일반주민의 거주지역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궁성정문과 외성남문을 있는 직선도로가 성

내의 중심도로이며 이 중추선중심으로부터 궁성북쪽성벽에 치우친 곳에 궁전을 배치한 것, 궁전앞 중추선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중횡으로 도로와 성문들이 정연하게 배치된 것 등은 후세 도시건설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장안성(長安城)은 수(隋), 당(唐)시기의 도성(都城)이다. 장안은 지금의 서안시로서 위 하류역의 관중평원에 자리잡고 있었다. 수나라 문제(文帝)는 개황2년(開皇二年-582년)에 서한(西漢)이래의 장안성을 버리고 그 동남에 새로운 도성을 건설하였다. 이 새도성은 대건축가 우문개(宇文愷)가 설계한 것이다. 새 도성을 대흥성(大興城)이라고 불렀는데 축성공사는 양제(煬帝)때에도 계속되었다. 그후 당나라때에 와서 완공되었다. 외곽성(外郭城)은 영희 5년(永徽-654년 당나라 제3대 고종 리치의 통치시기)에 완성되었다. 새도성의건설은 선후하여 70여년이란 긴 세월을 거쳐서 웅위로운 규모를 가진 새도성으로 건설되었다. 장안성의 건축은 당시 사람들의 노동과 지혜의 결정이다.

장안성은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로서 수, 당시기 전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이었고 당시 아시아 여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다.

장안성의 외성(外城), 내성(內城), 궁성(宮城)의 성벽은 모두 흙을 단단히 다져 쌓았고 오직 성문돈대(墩臺)와 성의 굽인돌이(城拐角處)만은 벽돌로 쌓았다. 당나라의 동도(東都) 락양성(洛陽城)의 궁성과 황성(皇城-내성)은 성의 내외 두면을 모두 벽돌로 쌓아 그의 날로 번영 부유해가는 중요한 지위를 현시하였다⁶⁾. 중국성곽사를 살펴보면 흙을 다져 도성을 쌓은것은 원(元)나라때까지 기본적으로 계속되고 명나라(明朝)때부터 도성 성벽을 완전히 벽돌로 쌓았다.⁷⁾

한(漢)나라때의 도성 장안서는 불규칙적인 구형(不規則的的形)이고 업성은 동서로 놓인 장방형이며 당나라의 장안성(長安城)은 618년 건국한 때로부터 907년 망할때까지 290년동안 줄곧 당나라의 도성이었다. 장안성은 방형에 가까운 동서로 놓인 장방형이다. 고고학자들이 실측한바에 의하면 성벽의 동서너비는 9,550미터이고 남북의 길이는 8,470미터이며⁸⁾ 둘레의 길이는 36,040여미터이다. 이는 지금의 북경의 옛성보다 크며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성이었다. 내성(內城)과 궁성(宮城)은 (外城)의 북판에서 정북쪽으로 북쪽성벽에 치우친 곳에 위치해 있다. 내성은 동서로 놓인 장방형이고 내성의 북쪽은 성

6) 맹경원(孟慶遠)주편: 《중국고대사상식》(전제부분).

7) 중국청년출판사 1980년9월 출판 266페이지.

8) 오정옥(馬廷玉): 《수당사화》 123페이지. 1984년 9월 북경출판사출판

벽이 없이 큰 길과 접하였다. 궁성도 동서로 놓인 장방형이다.

② 평지도성의 축성재료

고구려의 국내성 성벽은 잘 다듬은 방추형(方錐形)의 성돌로 쌓았다. 안학궁의 성벽은 돌과 흙으로써 쌓은 토석혼축성(土石混築城)이다. 북벽 동쪽의 일부와 동벽 남쪽의 일부에서 확인한데 의하면 지표에서 9미터의 너비로 성벽의 폭을 정하고 성벽안팎은 돌로 일정한 높이까지 쌓아올린 다음 그안에 진흙을 다져채웠다. 돌을 쌓은 부분의 높이는 성벽안쪽이 1.1미터, 바깥이 1.8미터이며 안쪽은 5단, 바깥쪽은 6단으로 쌓았다. 그 축조 방법은 성벽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네모난 성돌의 바깥면을 조금씩 뒤로 밀면서 계단이 지게 쌓아올렸는데 이는 국내성의 북벽밑부분에 굽도리벽을 조성하면서 계단식으로 경사지게 쌓은 형식과 서로 같다. 평양성의 성벽은 모두 돌을 다듬어 견고하게 쌓았다. 성돌은 화강석, 사암, 혈암등 여러 가지 석재를 4각추형으로 다듬은것인데 그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밑에 쌓은 성돌은 크고 위로 올라가면서 작은것을 썼다. 모두어 말하면 고구려의 국내성은 석성이고 안학궁은 돌과 흙을 섞어 쌓은 토석혼축성이며 평양성은 석성이다.

한 나라의 장안성, 조위의 업성, 당나라의 장안성, 일본 나라시대의 평성경(平城京)과 평안경(平安京)은 모두 흙으로 판축하여 쌓은 토성(土城)이다.

③ 도성의 중복도

고구려의 평지도성은 4각형 단일식 평지도성(四角形單一式平地都城)으로부터 표주박형의(葫蘆形) 다성런접제성(多城連接制城)으로 발전하였다. 고구려의 평지도성은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단성제(單城制)이고 후기에 이르러 런접형제(連接形制)로 발전하였다. 안학궁은 궁전(宮殿)밖에 궁전을 보호하는 성벽 한벌만 쌓고 내(內),외(外) 두 성벽을 구성하지 않았다. 궁전(宮殿)은 모두 회랑에 의해 련결되었다. 국내성정황도 안학궁정황과 같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성벽이 한벌뿐이다. 고구려의 후기 도성인 평양성은 외성(外城),중성(中城),내성(內城),북성(北城) 등 4개 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성과

성사이에에는 모두 한 개의 성벽으로 련접(連接)되었다.

당나라 장안성은 외성,내성,궁성등 3개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외성은 내성과 궁성을 동,서,남 3면으로 둘러싸으며 내성과 궁성은 모두 동서로 놓인 장방형으로 서로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다. 장안성의 북쪽성벽은 가운데가 불쭙 밖으로나가서 “凸” 형으로 생겼다. 한나라 장안성은 단일성(單一城)으로 성내의 대부분지역은 궁전이 자리잡았다. 업성과 평성경은 모두 2중성이다.

④ 성문의 설치

고구려 국내성의 성문은 원래 남북성벽에 각각 1개,동서 성벽에 각각2개씩 도합 6개가 있었다. 《집안현지(集安縣志)》의 기재에 의하면 민국10면(1921년) 성문 3개를 수축하였는데 동쪽의것을 집문문(輯文門), 서쪽의것을 안무문(安武門), 남쪽의것을 금강문(襟江門)이라고 하였다. 그후 나머지 3개 문은 모두 막아버렸다. 집문문, 안무문, 금강문 등과 성벽은 1947년까지 보존되었다. 그후 해방전쟁시기에 모두 무너졌다. 2003년 발굴시에 북쪽성벽 서북구간에서 문자리 1개가새로 발견되었다.

안학궁 4면의 성벽에는 각각 성문을 내었는데 동, 서, 북의 3개 성벽에는 각각 1개의 문을 냈으며 남쪽 성벽에는 3개의 문이 나란이 있는 3문식성문(三門式城門)을 만들었다. 정문(正門)인 남쪽성벽의 가운데문은 길이가 45.6미터, 너비는 18미터나 되었으며 그 좌우에 있는 2개의 성문도 가운데문과 크기가 비슷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궁성정문수축에 있어서의 특징이다. 이외 성벽에는 성문밖에 북쪽성벽과 남쪽성벽에 성벽밑으로 통하는 수구문을 냈다. 이 수구문들은 대성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성안의 동쪽에 있는 못에 끌어들이고 또 물을 성벽밖으로 빼기 위한것이다.

평양성의 성문설치에 대해서 건설당시 어떻게 설치되어있었는지 정확한것은 잘 알수 없으나 후세까지 성문자취가 남아있는것 가운데서 고구려때의것으로 확정된것은 많지 못하다. 그러나 북성, 내성, 중성, 외성 등 매개 성에는 외부와 통하는 성문이 있었고 성들사이에에도 성문이 있었을 것이다. 중성의 성문으로서는 보통문(普通門)과 고구려때의 도시구획선으로 보아 정양문(正陽門-중구역), 함구문(含球門-평천구역)이 있었고 내성(內城) 에는 그 유적으로 보아 칠성문(七星門), 대동문(大同門), 정해문(靜海門) 등이 있었다. 외성(外城)에는 거피문(車避門), 다경문(多景門), 선요문(宣耀門) 등이 있었다.⁹⁾

고구려의 도성인 국내성과 안학궁의 성문은 동, 서, 남, 북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비교적 정연하게 배치되었다. 그러나 평양성은 그 형태가 표주박모양이고 지세에 따라 쌓은 평산성이기 때문에 다른 평지성보다 정연하고 조직되지 못하였다.

장안성은 규모가 웅대하고 장관이며 경제가 번영하고 인구가 많았기에 성이 크고 성문(城門)도 많았다. 장안성의 외성성문은 동, 서, 남, 북 4면에 각각 3개씩 모두 12개 있다. 외성의 북쪽성벽중부는 궁성의 북쪽성벽이 되며 궁성의 동쪽성벽과 북쪽성벽이 합치는 모서리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사이에는 대명궁(大明宮)의 남쪽성벽이 있다. 대명궁의 남쪽성벽과 외성 북쪽성벽 동쪽구간에는 성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북쪽 성문 3개는 모두 북쪽성벽의 서쪽구간에 내었다. 북쪽성벽의 성문은 장안성의 북판에 있는 주작대가(朱雀大街)의 중추선을 떠나 설치되었기 때문에 남쪽성벽에 설치된 명덕문(明德門), 계하문(啓夏門), 안하문(安化門) 등 3개 문들과 서로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서리 엇갈리었다.

장안성 내성의 남쪽성벽에 주작문, 안상문(安上門), 함광문(含光門) 등 3개의 성문이 있고 동쪽성벽과 서쪽성벽에는 각각 1개씩 있으며 북쪽에는 성벽과 성문이 없다. 남쪽성벽에 낸 3개의 성문중 가운데 문 즉 주작문만은 외성의 남쪽성문들 가운데서 명덕문과 일직선상에 놓였다. 나머지 2개 문은 외성의 남쪽문과 관련이 없이 설치되었다. 내성의 동쪽성문길은 흥경궁(興慶宮)이 외성의 동쪽성벽에 접하여 있기때문에 흥경궁이 서쪽성벽까지 통하고 외성의 동쪽성벽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서쪽성문길은 외성의 서쪽성벽까지 이르렀다.

장안성의 궁성의 남쪽성벽에 5개의 성문이 있고 북쪽성벽에는 2개의 성문이 있다.

⑤ 치, 각루, 녀장, 장대, 웅성 등의 설치정황

고구려의 평지도성에는 일반적으로 웅성(翁城), 치(馬面이라고 한다.), 녀장(女牆), 장대(將台), 각루(角樓) 등을 모두 설치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평지도성을 축성함에 있어서 특징의 하나다.

국내성 성벽에는 일정한 거리를 사이두고 치가 설치되어있다. 지금 남은 흔적을 살펴

9) 《고구려 평양성》.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8년판. 제72~84페이지.

보면, 북쪽성벽에 8개, 서남, 동쪽성벽에 각각 2개씩 도합 14개이다. 치의 크기는 같지 않다. 일반적길이가 8~10미터, 너비가 6~8미터이다. 성의 서북모서리와 서남모서리, 동북모서리에는 지금도 각루자리가 있다. 이께우찌 히로시(池内宏)가 쓴 《통구(通溝)》 권상 제4장 제1절에 의하면 성문은 남북에 각각 1개, 동서에 각각 2개 도합 6개 있었는데 성문마다 옹성이 있었다라고 지적하였다¹⁰⁾. 위의 자료로 보아 국내성에는 옹성, 각루, 치가 정연하게 설치되어있었음을 알수 있다.

안학궁성벽의 네 모서리에는 각루터가 있다. 그러나 치, 옹성, 망루는 없다.

평양성 성벽에는 치와 각루, 너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있었다. 성문에 옹성이 있었는데 없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옹성유적이 남아있는 것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것을 알수 없다. 성밖에는 모두 해자를 설치하였다.

한나라의 장안성, 조위의 업성, 당나라의 장안성, 일본의 평성경과 평안경에는 치, 장대, 옹성들을 설치하지 않았다.

⑥ 궁전배치상태

고구려의 국내성과 안학궁의 궁전건물가운데서 중심건물은 성의 남북중추선우에 위치했으며 남으로부터 북으로 한줄로 배열되었다. 이 기본건물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동궁(東宮)이 있었고 서쪽에는 서궁(西宮)이 설치되었다.

당나라 장안성에는 태극궁(太極宮), 대명궁(大明宮), 흥경궁(興慶宮) 등 3개 궁전들이 있다.

태극궁내에는 모두 16개의 궁전이 있다. 태극궁 서쪽에는 액정궁(夜庭宮), 동쪽에 동궁이 있었다. 태극궁은 당나라 초기 정치의 중심지였다. 정관년간(貞觀年間)의 허다한 이야기는 모두 이곳에서 생겼다.

대명궁은 643년(정관 8년)에 건축되었다. 대명궁내에는 전(殿), 정(亭), 관(關) 등이 30개 있다. 대명궁은 3대궁전가운데서 제일 웅장하고 장관이며 제일 휘황한 궁전이였기 때문에 고종(高宗)이후의 황제들은 다수가 이곳에 거주하였다. 대명궁의 정전(正殿)은 함원전(含元殿)이다. 고종이후 나라의 정치중심은 이곳으로 옮겼고 국가대사도 이곳에서

10) 《집안현문물지》 제62페이지.

진행되었다. 함원전북쪽에 선정전(宣政殿)이 있고 선정전좌우에 중서성(中書省), 문하성(門下省)이 있었으며 그 동쪽에 평문관(宏文館)과 사관(史館)이 있었다.

대명궁내의 다른 한 중요한 건물은 린덕전(麟德殿)이다. 린덕전은 태극지(太極池)서쪽의 높은 지대에 있다. 나라의 연회, 외국사절들의 래조(來朝), 재상의 상주(上奏) 등은 모두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홍경궁은 개원초(開元初)에 건설되었고 당나라 현종(玄宗)시기 정치활동의 주요한 장소였다. 홍경궁내에는 여러개의 궁전과 루각이 있었다.

태극궁내의 궁전배치는 외성남쪽 성벽정문으로부터 외성 북쪽성벽을 연결하는 중추선에 설치되었지만 대명궁과 홍경궁의 배치는 중추선과 관련이 없이 대명궁은 외성북쪽성벽이 밖으로 돌기한 동북쪽에, 홍경궁은 외성 동쪽성벽 춘명문(春明門) 바로 서쪽에 지어졌다.

⑦ 평지도성과 산성과의 관계

고구려의 평지도성은 산성과 함께 한 개 방어체계를 형성하던데로부터 평지성과 산성이 합쳐 한 개 통일적인 성체계(城體系)를 형성한 평산성(平山城)으로 발전하였다.

국내성과 환도산성과의 거리는 5리이다. 안학궁은 대성산 수문봉 바로 남쪽기슭의 언덕에 자리잡았다. 환도산성과 대성산산성은 각각 국내성과 안학궁의 호위성(護衛城)이었다. 평지성이 산성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일단 유사시에는 산성에 들어가 방위하였다. 이와같이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되어 한 개 방어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평지도성의 성벽을 한벌만 쌓고 2중, 3중으로 쌓지 않았다. 평양성은 산성과 평지성의 우점을 동시에 살려 쌓은 신형의 도성이다. 성벽은 모두 방어에 유리한 고지와 강기슭을 따라 쌓았다. 성벽은 금수산 모란봉으로부터 시작하여 청류벽을 거쳐 대동강의 북쪽기슭을 따라 평천구역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보통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뻗어 안산, 만수대를 거쳐 을밀대를 지나 모란봉에 잇닿아있는데 그 평면구조는 표주박모양처럼 생겼다. 평양성의 지형을 이렇게 선정한 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오랜 기간 산성과 평지성을 쌓고 싸워온 경험의 총결이었다.

한나라의 장안성, 조위의 업성, 당나라 장안성, 일본의 평성경과 평안성 등은 산성과 밀접히 결합하여 한 개의 방어체계를 형성하지 않은 단독적인 평지도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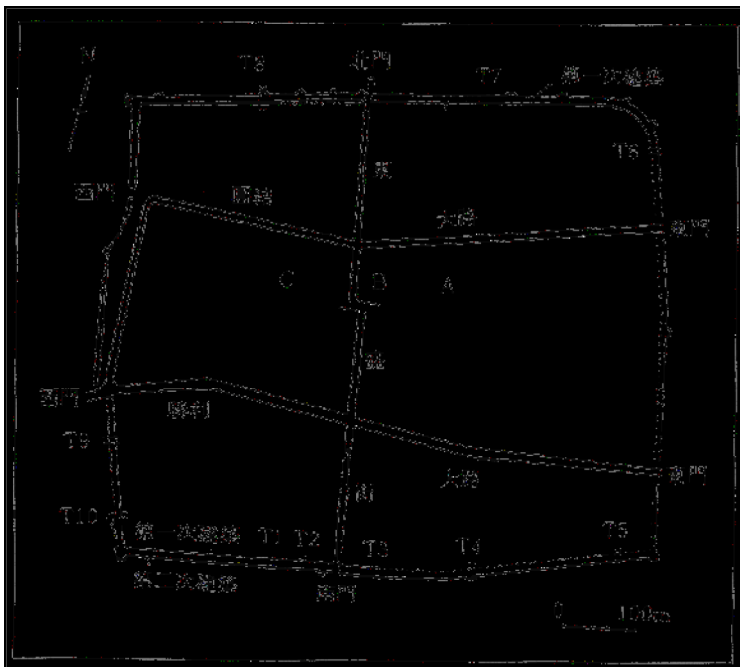
⑧ 고구려의 도성의 변화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산성으로부터 전형적인 평지성과 산성이 밀접히 결합하여 한 개의 방어체계를 형성한 평산성(平山城)으로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초기에 오녀산성(五女山城)에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선후하여 국내성과 안학궁으로 천도하였다. 국내성과 안학궁은 평지성(平地城-平原城이라고도 한다)이다. 후기에 평양성을 건설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다. 평양성은 산성(山城)의 특점과 평지성의 특점을 잘 배합시켜 건설한 도성(都城)이다. 평양성의 총길이는 약 23키로미터이고 성안의 넓이는 11.85평방미터이다. 평양성 둘레의 길이는 국내성과 안학궁의 몇배이며 평양성은 고구려 도성가운데의 전형이다.

당나라 도성 장안성은 당나라가 존속한 290년동안(618~907년) 줄곧 당나라의 수도였다. 당나라의 도성은 산성으로부터 평지도성으로 발전변화하는 과정을 경유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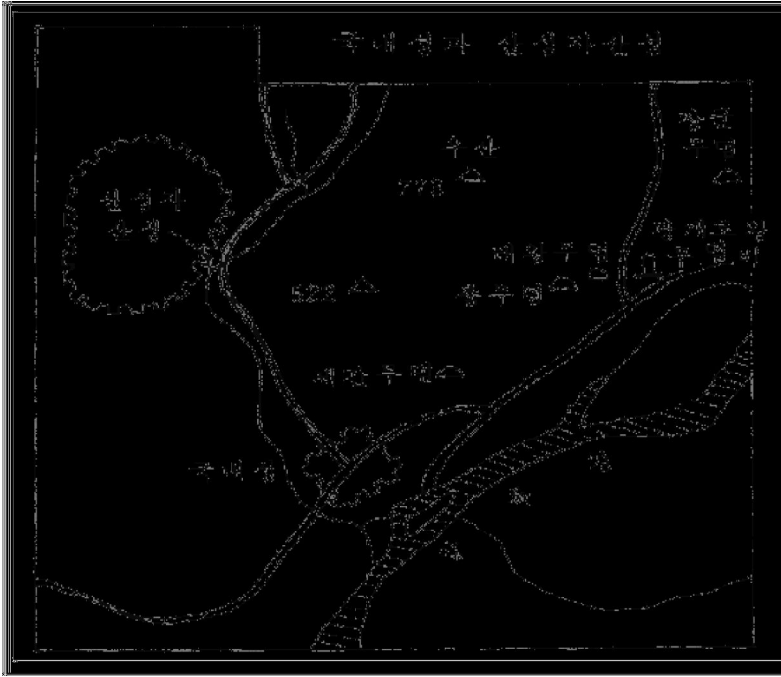
이상과같이 고구려는 그가 존속하는 700여년동안이라는 오랜세월을 경유하는가운데서 본민족과 본 지구에 알맞는 세상에서 특이하고 독창적인 도성문화(都城文化)를 창조하였는바 이는 마땅히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문화유산이다. 그러기에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8일사이에 열린 련합국문화재유적회의에서 오녀산성, 궁내성, 환도산성……등 고구려유적을 세계문화유적보호로 등기하였다. 이는 우리문화사의 자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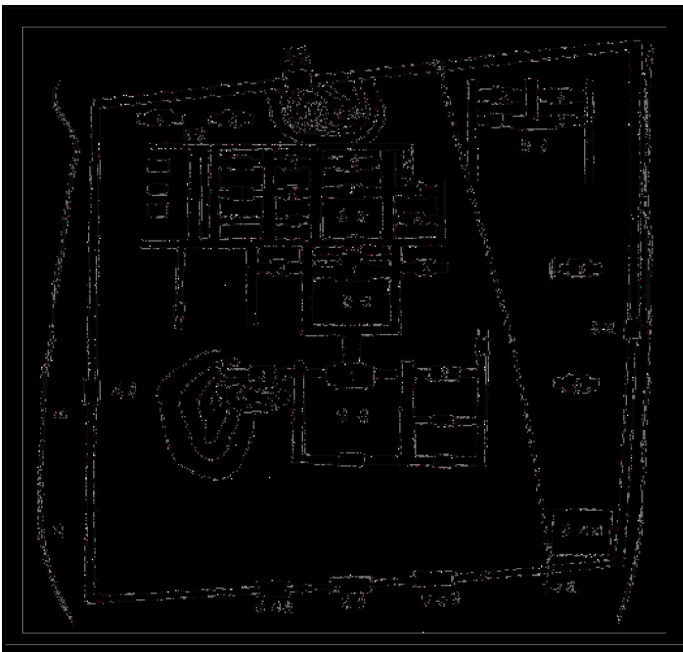
<오녀산성 평면도>



<국내성 평면도>



<국내성과 산성자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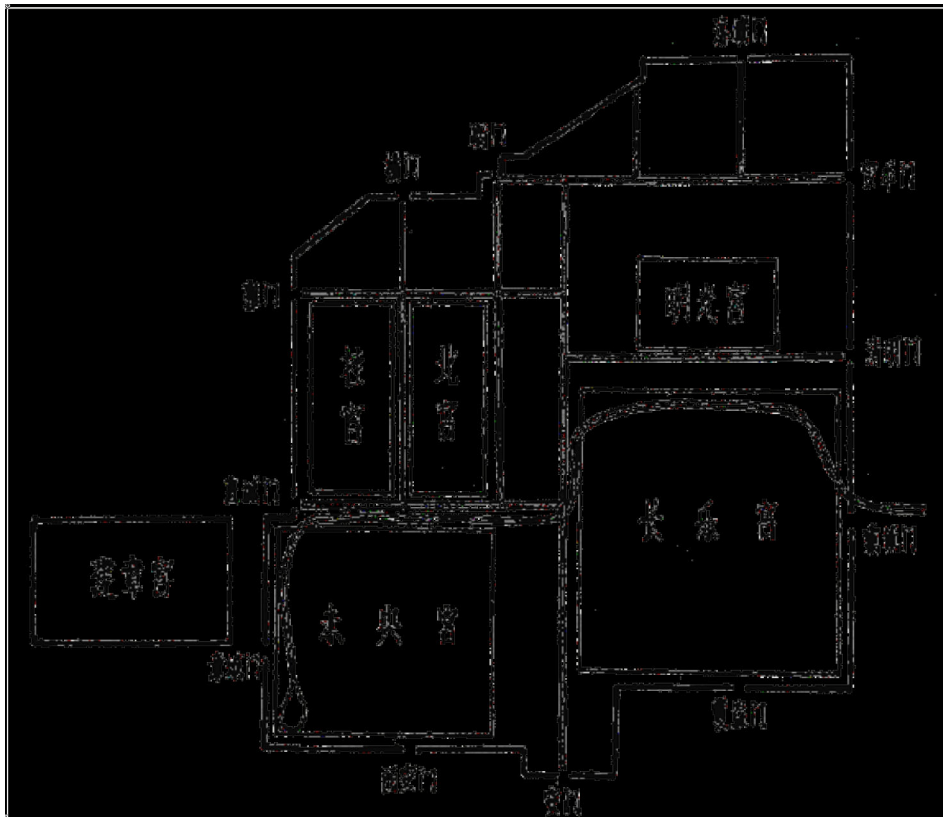
<안학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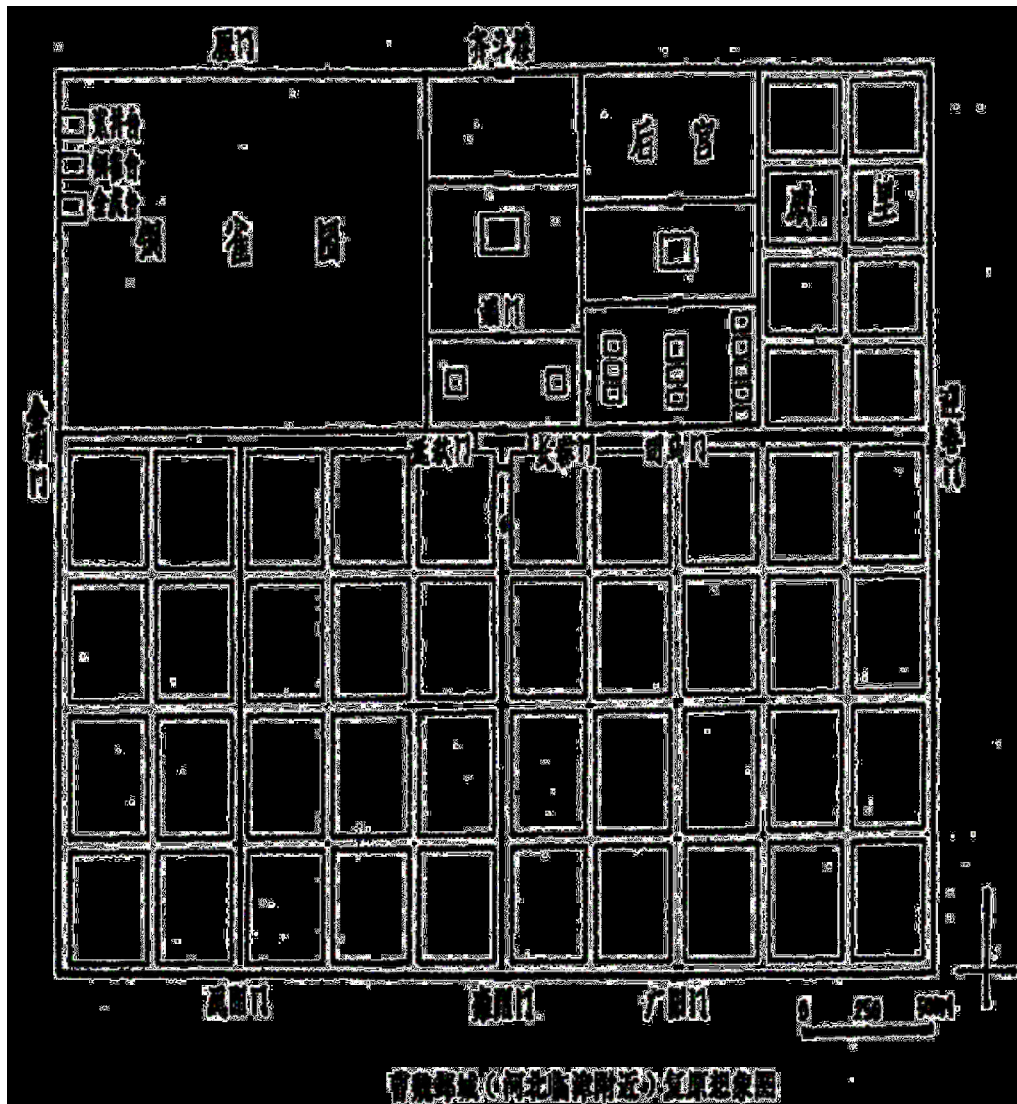
<안학궁과 대성산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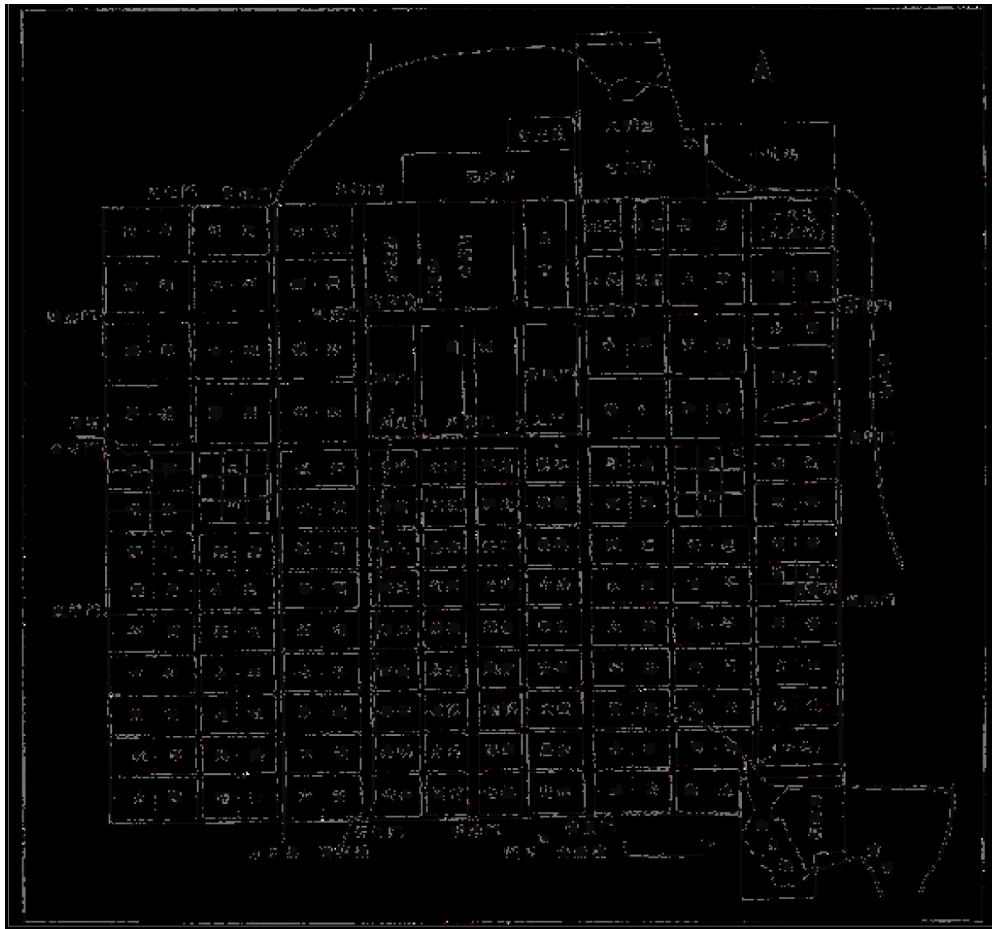


<고구려 평양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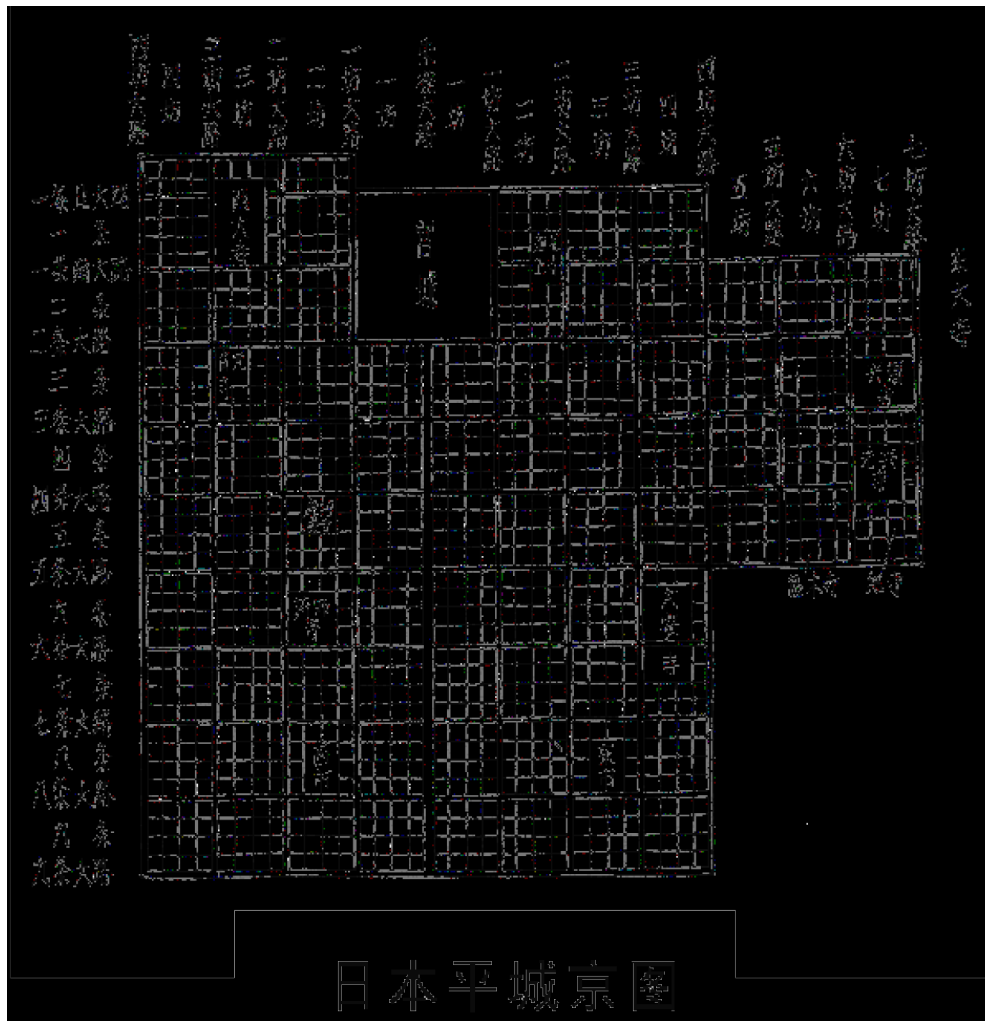


漢長安城復原想象圖





<수·당의 장안성 평면도>



“고구려 도성의 변화 발전 과정으로부터 본 고구려 평지도성의 특징”에 대하여

이 인 철 (Yi, In Chol, 고구려연구재단)

발표자는 이 논문에서 고구려도성으로 알려진 오녀산성, 국내성, 평양의 안학궁과 장안성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하고, 중국의 도성과 다른 고구려평지성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

국내성과 안학궁은 장방형의 평지성이고 평양성은 표주박형의 平山城인 데, 수당의 장안성은 장방형의 평지성으로 그 형태가 다르다. 고구려의 국내성은 석성이고, 안학궁은 돌과 흙을 섞어 쌓은 토석혼축성이며 평양성은 석성이었는데, 한나라의 장안성, 조위의 업성, 당나라의 장안성, 일본 나라시대의 평성경과 평안경은 모두 흙으로 판축하여 쌓은 토성으로 그 축성재료도 다르다. 고구려의 평지도성에는 웅성(翁城), 치(馬面), 여장(女牆), 장대(將台), 각루(角樓)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나라의 장안성, 조위의 업성, 당나라의 장안성, 일본의 평성경과 평안경에는 치, 장대, 웅성이 없다.

고구려의 도성은 산성으로부터 전형적인 평지성과 산성이 밀접히 결합하여 한 개의 방어체계를 형성한 평산성(平山城)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나라의 장안성, 조위의 업성, 당나라 장안성, 일본의 평성경과 평안성 등은 산성과 결합하여 한 개의 방어체계를 형성하지 않은 단독적인 평지도성이었다. 당나라 장안성은 290년 동안(618~907년) 수도였지만 산성으로부터 평지도성으로 발전 변화하는 과정도 경유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표자의 논지는 전체적으로 고구려의 평지도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평지성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고구려가 독창적인 문화를 가졌던 국

가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말하는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지방정권 중에 하나인 고구려를 의미하는 지, 아니면 한국사의 일부로서 고구려를 의미하는 지가 매우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어 유감스럽다.

발표자는 여러 학자들이 평지도성으로 간주해온 하고성을 초기평지도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급하지 않았다. 하고성을 빼고 오녀산성 만을 검토하여 논지를 전개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고구려의 도성이 산성으로부터 평산성의 형태로 발전하였다는 식의 논지가 전개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王錦厚가 쓴 『高句麗古城研究』에서는 청동기시대와 오녀산성에서 발굴된 이른 시기 토기편과 같은 토기편, 그리고 고구려건국이전에서 서한 후기에 이르는 토기편들이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하고성이 오녀산성과 짝을 이룬 평지성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올해 6월에 나온 『오녀산성』 보고서에서도 약간의 유보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하고성의 축성년대를 고구려건국초기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하고성이 즐본시기의 평지성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고구려도성은 평지성과 산성이 짝을 이룬 형태에서 平山城의 형태로 발전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발표자는 또한 국내성 석축 성벽 아래에 있는 토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녀산성』 발굴보고서는 국내성석축 아래의 토성과 하고성을 같은 시기에 쌓은 같은 양식의 토성으로 보고 있다. 1975년에서 76년의 집안 국내성 발굴 시에 高句麗石築 성벽 안에서 발견된 漢 대의 토축 성벽에서 漢代의 철기 토기 등의 문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중국 측에서는 고구려 건국 전에 이미 서한왕조의 행정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발표자께서 하고성이나 국내성 토축 성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신 것이 이들 토성을 漢이 축성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궁금하다.

중국학자들은 고구려를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 발표자께서도 중국측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면, 고구려도성과 수당의 장안성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州城과 같은 지방의 城과 고구려의 평지도성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럼에도 발표자께서 고구려의 평지도성과 한나라의 장안성, 조위의 업성, 당나라의 장안성을 비교하여 고구려 평지도성의 특징을 밝힌 것은 고구려가 한낱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라 대등한 국가였음을 주장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끝으로 고구려사를 둘러싼 韓中間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재중교포 원로학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란다.